**(김 에스더 선교사 기도편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을 파일로 첨부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김에스더 드림

**기도제목**

1. 주의 성령과 은혜, 긍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달 이웃 나라에서 있었던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약 300여명의 사역자들이 ‘주변 이웃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염려없이 마음껏 소리 높여 한국어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충전의 시간과 가을 숲도 감상하고 왔습니다. 숙소 가까운 거리 카페 앞에 300년? 된 포도나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목이 된 원줄기는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 난 가지들이 뻗어서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요15:1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그 포도나무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잘라 낸 것 같은 포도의 원줄기는 고목 같이 견고하고 새로운 가지들은 열매와 잎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옛 것과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서 깨끗하게 해서 새 가지에서 새싹을 내고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을 동반하는 댓가를, 사역의 새로운 도전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결단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한식교육을(궁중요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입국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1. N이 출산을 앞두고 교제하면서 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다고 하여 기도해 주고 온 1주일 뒤에 정상분만을 못하고 수술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곳 병원은 하루만 병원에 있고 퇴원하여 산모는 정상적으로 퇴원했는데, 신생아는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서 3일이나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일 때 만났던 N이 엄마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지난 주에 거주 비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저의 우편물이 이민국에서 한국에 호의적인 담당자가 처리하여 별다른 결격사유나 추가 제출 서류 없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12월 20일 출국 예정으로 업무와 정리정돈, 공과금 등 잘 처리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1월의 2주간 강좌 수강과 2월의 지도자 교육과 시험, 정기검진, 동역교회 방문과 교제 등 주의 성령께서 예비하신 국내 일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가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데, 한국에 적응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4. 2018년을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며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한 동역자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께서 2019년의 계획하는 사역에도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김에스더 드림